

# “영암, AI 조선·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할 터”

김영록 지사 정책비전투어...10대 비전 제시

“구립 르네상스 등 정주·관광 인프라 확충”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영암을 세계 1 등 AI (인공지능) 조선과 미래에너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AI 조선·에너지 미래도시’로 확실하게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영암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암군 정책비전 투어에 참석해 지역 발전 방안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우승희 영암군수, 신승철·손남일 전남도의원,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승희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이 자리는 도정의 비전이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영암이 어떤 준비와 도약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영암은 전남도가 그러는 큰 비전과 발맞춰 지역이 가진 가능성과 강점을 정확히 짚고 도정과 함께할 수 있는 분야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영암군의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와 관련, “조선해양 친환경 고도화 공유플랫폼 사업으로 중소 조선사의 생산기술을 친환경·스마트화 공정으로 전환 중”이라며 “특수산업 활성화 및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통해 미래형 자동

차 튜닝산업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불산단을 안전·물류·에너지까지 한 번에 관리하는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 상호 아우름 플랫폼을 올해 준공했다”며 “‘S.M.A.R.T로 재탄생하는 영암’ 사업을 통해 어울림복합센터·특화상점 등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남형 만원주택도 50세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타운하우스 마련 등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설명했다.

호남 명촌 구립 르네상스 추진, 한식체험관·한옥호텔 조성을 통한 전주 한옥마을에 버금가는 지역 조성 등 영암의 맛과 흥을 살린 관광인프라도 확충 사업도 소개했다. 월출산 기슭에 자리한 구립마을은 도선국사가 태어난 곳으로 호남 3대 명촌으로 불린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강의실·연습실·스튜디오·연습생 기숙사 등을 갖춘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건립사업, 국립마한 역사문화센터 건립, 월출산 생태탐방원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영암군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암군 정책비전 투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김 지사는 “지역 산업을 떠받치고 주민 삶의 질을 올려 줄 사통팔달 SOC(사회간접자본)도 구축 중”이라며 “영암~광주 47km를 잇는 국내 최초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광주~영암 간 이동 시간을 25분으로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안 일로~영암 시종 간 연계도로 개설과 장흥 유차~영암 급정 국도 23호

선 시설개량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교통 접근성을 크게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역민 여러분이 영암의 잠재력을 한마음으로 키워간다면 영암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조선·에너지 미래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며 “영암이 더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생태

도시 염암’을 슬로건으로 한 미래 10대 비전으로 △에너지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 그린시티100 △차세대 조선 기술 혁신 허브로의 도약 △산업 대전환 △친환경·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제시했다.

또 △월출산 기(氣) 치유 여행으로 영(Young)한 영암 △활력과 매력 넘치는 해양·생태·체험관광 활성화 △역사·문화

자원 재발견 △영암읍 압축도시 조성으로 인구 1만명 회복 △대한외국인 행복도시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통한 서남권 중심 도시 도약도 10대 비전에 포함됐다.

행사에 참석한 영암 주민들은 청암지원 센터 조성, 대불산단 노후화에 따른 국비 지원, 국제 바둑연수원 건립, 상호호 농어촌복합체육관 리모델링 등을 건의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 강기정 시장, 14일 김대중센터서 출판기념회 연다

‘민주도시에서 부강한 도시 광주로’ 미래 구상 담겨  
선거 돌입 ‘신평안’...정치권, 지지자 대거 참여 예상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강 시장은 ‘광주, 처음보다 더 적극적인 두 번째 등장’의 책을 통해 “광주의 첫 번째 등장이 민주도시였다면 두 번째 등장은 부강한 도시로의 도약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방선거 레이스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책에서 강 시장은 “광주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정부를 세우는 데 기여했지만, 그 희생이 도시의 풍요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하며

“이제 광주시민의 자부심은 역사 속 희생이 아니라 오늘의 삶과 도시의 번영으로 설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 시장이 제시하는 미래 구상의 핵심은 ‘부강한 광주’다. 강 시장은 “부”는 산업과 일자리로 도시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힘이고, “강”은 시민 삶을 지탱하는 포용과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한다.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도시가 ‘부강한 광주’라는 의미다.

강 시장의 이러한 비전은 지난 3년간의 시장 성과와도 맞닿아 있다. 그는 취임 후 광주다움 통합돌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G-패스 등 전국 최초 복지·돌봄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며 ‘돌봄 민



주주의’를 현실에 안착시켰다.

산업 분야에서는 국가AI데이터센터 개관,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AI기업 350여 곳과의 협력 구축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빠르게 다져왔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강 시장은 ‘민주주의 뿌리 위에 AI로 완성하는 미래도시 광주’, 즉

AX성장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를 “대한민국 AI 3강, 나이가 초격차 AI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 시장은 “광주는 지금 민주주의 DNA 위에 AI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두 번째 등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열린 성장의 기회를 붙잡아 ‘모두의 AI, 모두를 위한 미래도시 광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강 시장 측 내부 진영도 선거 국면에 맞춰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정성학 대외협력보좌관, 신정호 시민참여정책보좌관, 박철호 정부특별보좌관 등 핵심 보좌진이 잇따라 사퇴함에 따라 이들은 외곽에서 조직 정비, 향후 캠프 구성 등을 주도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반 이정선 연대’ 단일후보 뽑는다

〈김용태·오경미·정성훈〉

110여개 사회노동단체 ‘광주교육감 공천위’ 구성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재선 도전에 맞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진영 출마예정자 3명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공식 기구가 출범했다.

광주민주진보시민 교육감후보 시민공천위원회는 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상무관 앞에서 공천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방식·시기·절차 등을 발표했다. 공천위원회에는 전교조·광주교사노조·민주노총 등 110여개 지역사회 노동단체가 참여했다.

상임위원장은 안석 마을교육공동체포럼 대표가 맡았고, 공천위원들은 앞으로 광주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회에 참여하며 광주시민공천 홍보 활동을 벌인다. 시민공천위 후보 공천 결정 투표에도 참여한다.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인 김용태 전 전교

조 광주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훈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단일화 추진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공천위원회는 출범선언문에서 “광주교육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시민에게 묻고 시민의견을 경청해 민주진보시민교육감 후보를 선출하겠다”며 “광주시민이 만들어내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민의 힘으로 광주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단일화는 시민 2만명을 목표로 모집하는 공천단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뽑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광주교육진흥토론회(12월15일), 후보자 접수공고(12월26일까지), 공천규정 확정(12월31일), 정책토론회1·2차(내년 1월 12~30일), 공천단 투표·여론조사(2월 9~10일)를 거쳐 내년 2월11일 단일후보를 발표한다. 김진수 기자 joinsu@

## ‘총리실 출신’ 김덕수, 나주시장 출마 선언

주민 중심 자치·문화·경제 3대 비전 등 제시

국무총리 정부기획비서관을 지낸 김덕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사진)이 내년 6·3 지방선거 나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덕수 출마예정자는 8일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과 선언문을 통해 “바뀌야 바뀝니다. 나주 자치, 제대로 하였습니다. 일하는 도시, 함께하는 시민, 일상이 좋아지는 나주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방자치 30년, 우리 나주는 얼마나 변했습니까”라고 물으며 기존 시정을 “시장 중심의 자치”,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줄 세우기와 갈라치기”, “당선 후 측근·자리 정치”로 규정했다. 이어 “법규·예산·인사·정보 등 모든 권한이 행정 안에 갇힌 채 시민은 4년에 한 번 투표만 하고 그다음은 구경만 하는 구조였다”며 현 시정을 “반드시 바뀌어야 할 구조제”라고 평가했다.

김 출마예정자는 해법으로 ‘시민자치’,



‘주민(主民) 자치’를 제시했다. 그는 나주의 미래 방향을 “사람 사는 세상, 에너지·교육·공존이 만나는 생활도시, 일상이 좋아지는 변화가 이어지는 나주”라고 규정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공동체 나주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문화 공동체 나주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공동체 나주 등 3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어 “지금 나주는 혁신도시 시종2. AI(인공지능),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 기회를 살리느냐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나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조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 박성현 전 사장, 내년 광양시장 도전

‘터닝포인트 바다에서 길을 찾다’ 출간 토크콘서트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전남 광양시장에 출마를 준비 중인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사진)이 ‘박성현의 터닝포인트 바다에서 길을 찾다’ 출간기념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지난 6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권항엽·주철현 국회의원, 임규정 전 국회의원, 강정일 전남도의원,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항만전문가·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 문승태 순천대 부총장, 배우 이정길 등 각계 인사들도 참석해 박 전 사장의 출간을 축하했다.

150쪽 분량의 이번 저서에서 박성현 전 사장은 고향 광양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광양이 의존해온 현재 산업 구조는 영원하지 않다”며 “지속 가능한 도시 신화를 새롭게 써 내려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항이 컨테이너 중심 항만이라면 광양항은 에너지



·자원 물류의 허브로, 북극항로 시대 전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 “광양의 내일은 산과 바다가 함께 만들어 간다”며 “백운산의 숲과 광양·여수항의 바다는 도시의 두 심장”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두 심장이 고르게 뛰기 시작할 때 광양은 전남에서 가장 잘 사는 경제·관광·문화·교육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래상을 그렸다.

토크콘서트에서 박 작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여러 선택의 순간을 통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온 여정을 소개했다. 그는 “이 책은 나의 회고록이자 또 하나의 항해일지”라며 “또 다른 항해를 준비하고 있으며, 나의 여정은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lgjin@gwangnam.co.kr

## 도, 지방소멸대응기금 5년 연속 ‘전국 최다’

1648억원 확보... 원도·화순 ‘우수’ 선정

전남도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전국 최다인 1648억원을 확보하며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완도와 화순이 우수지역으로, 고흥·영암·신안 S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전남 시·군이 상위 권에 고르게 배치됐다.

8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배분되는 재원으로, 전남은 광역지원계정 304억원과 기초지원계정 1344억원을 합해 총 1648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는 기금 운용 방식이 기존 시설 중심에서 인구유입 효과 중심으로 전환됐고, 평가체계도 우수·S·A·B 등급으로 세분됐다.

전남에서는 완도군과 화순군이 전국 8개 우수지역 가운데 포함됐다. 완도군은 해양치유 기반의 정주·체류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과 돌봄

체계 강화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두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최상위 평가를 받으며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S등급에는 전국 11곳이 선정됐으며, 전남에서는 고흥군·영암군·신안군이 포함됐다. 이어 A등급에는 곡성·강진·진도·보성·영광·해남 등 6곳, B등급에는 담양·장성·함평·장흥·구례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전남 16개 인구감소지역 모두가 우수~B등급 안에 배치되며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등급별 배정액은 우수지역 120억원, S등급 88억원, A등급 80억원, B등급 72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광주에서는 동구가 관심지역 A등급에 포함됐다. 관심지역은 전국 18곳이며, 올해 A등급을 받은 곳은 동구를 포함해 4곳 뿐이다. 관심지역의 등급별 지원액은 우수지역 30억원, A등급 24억원, B등급 18억원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